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교회문화의 핵심** 성경: **에베소서 4장 15-24절**

Tag: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18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교회 문화의 핵심은 진리의 말씀에 있다.

종교마다 문화가 있는데, 교회문화의 핵심은 진리의 말씀이다.

문화는 옷과 같아서 시대적 유행도 있고, 핵심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핵심이 빠진 문화를 얼빠진 전통문화라고 한다.

한국교회의 문화는 무엇인가? 주일성수, 성전건축, 해외선교, 제자훈

런, 주여 삼창, 통성기도, 방언기도, 종말론강해, 십일조, 찬양, 4부 성가대... 이런 교회문화에도 일이 빠지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에 불과하다. (과거문화 성미, 부활절 흰색 한복, 성탄절 새벽송, 새벽기도, 구역예배, 금요철야, 부흥회, 기도원문화)

요즘 생긴 문화는 특새, 구국집회, 일목운동, 일터사도운동, 예언운동 등이다.

그런데 약 10여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조짐은 20여년 전부터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왜 이처럼 생기를 잃어갔는가?

1. 종말론의 자가당착 (정확히 20년 전의 패닉)
2. 이단들의 할거-그동안 그래도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던 종말론 광신도들이 급기야는 이단들의 그물에 걸리기 시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에 대한 분명한 신학이 부재함. 산토끼는 놓치고 집토끼는 맥이 빠짐.
3. 주사파 집단의 지속적인 교회 허물기(때는 이때다.)
4. 무엇보다 교회 자체의 세속화-헌금 전성시대(반성 없는 교회는 소망도 없다.)-무분별한 헌금 사용, 금융권을 낀 교회건축
  - 헌신, 열정, 경전을 위한 시간 할애가 줄어들음
  - 대형화, 율법화, 기득권화, 귀족화(사람은 다 그런다. 그럼에도 겸손함화 품위는 잃지 말라.)
  - 세속화에 대항하는, 핵심 논객의 부재(겨우 김동길, 손봉호 장로는 반교회적) 영적 지도자들의 소천, 한경직, 옥한음, 신현균, 하용조)
  - 성직자의 자질 저하(평신도의 성직화) 성직자의 숫자 팽창
  - 교인 감소

우리 교회가 비로 이 때 설립됨. 22년째.

그러나 교회문화의 핵심은 역시 진리의 말씀에 있다.

1. 선한 이웃된 교회

2. 사랑이 넘치는 교회
3.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 강력한 서신서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안에서;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 정신의 핵심. 이 정신에서 기독교문화가 꽃을 피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사랑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일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사랑하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고전13장을 암송하자. 그대로 실천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사랑의 목적은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 거짓을 사랑할 수는 없다. 정결하지 않으면 사랑이 무슨 소용인가? 사랑 자체에 순결케 하는 능력이 있지만, 세속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랑의 목적은 진리를 행함에 있다.

-진리는 목적이요, 방법이요, 열정이다.(열정에 관해서는 사랑보다 진리여야 한다. 사랑에 어울리는 감성은 액션 and reaction이다.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낫두리.)

-교회의 모든 문화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그 사랑의 포커스는 진리를 향해야 한다.

그리고 이 행함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하는 것이 그 목표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삶이 되어야 한다.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

## 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성숙해 간다는 뜻.

17-19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교회의 목적을 방해하는 마귀의 도전을 설명하고 있다.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18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7;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허영심. 겉치레, 화려함, 장대함, 체함을 경계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

-돈 있는 척 하지 말고 돈을 벌어라.

-지식 있는 척 하지 말고 공부하라.

-기술 있는 척 하지 말고 훈련하라.

18절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가는 상태를 말한다.(진행형으로 표현함. 어두워지고, 굳어짐.)

-원인을 1. 무지함으로 규정함;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음.

2. 마음이 굳어짐;첫 인상으로 선부른 판단에 이름. 나이가 들어가면서 열정도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음. 다 그런 것은 아님. 스스로 자가 발전이 되어야 함.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야 함. 영적인 터치가 없으면 열정은 사그라짐. 영적인 교제가 중요함. 모임이 잦아들면 열정이 사그라짐.

19절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단계; 최악의 단계. 오히려 방탕을

방임함. 나이가 들어가도 자신을 영적으로 방임하지 말라. 일터에서 물러나는 것이지 교회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물러나는 것 아님.

###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3절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라.

24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를 행함; 구원의 의를 말함. 구원의 의>정의 (공의).

구원의 의는 공의와 성격이 다름. (오늘날에는 공의는 사회적 의라는 개념이 강함-손해배상)

구원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와 저주에 해당하는 것을 해결하는 의; 즉 오늘날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는 것임.

즉,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 짐. 자녀가 됨은 더러워진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음을 상징함.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함.

결국 이 두가지가 사람을 거듭나게 함. 새 사람이 되게 함.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회문화의 핵심임.

아멘.

<찬양예배>

제목 : 경건의 목적      성경: 에베소서 4장 25-32절

Tag:

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엡4:15-32)

교회문화에 대한 보편적 용어로는 '경건한 생활'로 들 수 있다.

25. 참된 것을 말함; 거짓말 금지. 거짓말은 경건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적. 참된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한 것임. 그 것을 의도하고, 지향하고, 보호하는 말을 할 것. 말조심.

26. 분을 내더라도 선을 지키라. 분을 참는 것도 문제. 분이 나야 하는데 안나는 것도 문제. 분을 내지만 선을 지켜야 함. (깡패나 양아치 짓거리하는 하지 말아야.)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해가 지면 당시에는 새날임. 근데 잠을 자야 하므로 진정하라.

분노를 정리하라; 정의를 바로 잡던지, 내가 포기하던지, 지혜를 구하

듣지.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마귀는 틈을 노림. 생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28.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하라.

29.더러운 말을 삼가라.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다;상대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말을 하라. 잔소리 금지. 한 두마디가 적당. 서너 마디는 아첨.

덕을 세우되 교만하도록 하지 말라;교만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악행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도록 말하라.

30. 성령을 근심케 말라; 인치심을 받지 않았느냐. 이미 계약서에 싸인 해 놓고, 계약을 어기지 말라. 하나님나라의 대출이 이미 집행되었는데 딴 소리 하지 말라. 제발 빌려간 돈으로 사업을 잘 하라.

31.